

“의원 정수, 행정구역 아닌 인구수 기준돼야”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정안’
형평성 제고 법 개정 추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역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지난 28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최대 20%까지 적용하여 시도별 시도의원 정수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시·군(이하, 시군구)수의 2배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20%



이원택 의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일 시군구 내 국회의원 지역구가 1개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구에도 2배수를 적용하여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 지방소멸위기 지역보다 인구가 물리는 도시가 정수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의원 정수산정시 시도별 인구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전남북의 경우 총 인구가 180만 명 내외로 비슷하지만 전남의 경우 기초단체인 시군의 수가 22개로 전남의

14세 시군의 수보다 8개가 많다는 이유로 광역의원 수는 전북 보다 12명이 많다.

또한, 조정범위도 전북이 5.9% 적용받은 반면 전남은 최대치에 가까운 20%를 적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북 다음으로 충청북도가 10.7%로 조정범위를 가장 적게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직전 지방선거 당시 전북과 전남의 인구수 차이는 6만 명에 불과했지만, 전남은 전북보다 19석 많은 55석의 시도의원 지역구를 확보했고, 비례대표까지 포함한 의석수는 21석이 많은 것(전남 61석, 전북 40석)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북보다 총인구수가 30여만명이 적지만 시군구수가 4개 많다는 명분으로 광역의원 총 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북보다 무려 9석 더 많다.

이로 인해, 부안군은 인구수가 5만 명이 초과했음에도 시도의원 정수가 부족하여, 법정 하한 규정인 2석이 아닌 1석만 배정됐다. 이는 개정 당시 부칙을 통해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남의 신안군은 인구가 4만 명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시도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2석이었고, 강원 횡성군·평창군·철원군 역시 인구가 5만 명 미만임에도 2석씩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경우 인구수가 36만 명에 달하지만, 지역구 수가 7석에 불과해 35만 명인 강원 원주시나 28만 명인 순천시(8석)보다 적었다. 전주시 덕진구(6석) 역시 인구 수준이 비슷한 강원 춘천시(7석)에 비해 의석수가 2석 적었다. 또한, 익산시(4석)의 경우 인구가 27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21만 명 수준인 목포시나 강릉시(5석)보다 1석이 적었다.

/서울=김영목기자

5월 전북 문화축제 열기 전주엔 영화, 남원에 춘향

전주국제영화제·춘향제 개막
오늘부터 내달 첫 주 ‘열기’
세계 손님 맞는 전통 도시들

전북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먼저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26회 전주 국제영화제가 30일을 시작으로 열흘간 진행된다. 영화제 티켓 예매는 1주일여 만에 전체 판매분의 85%를 넘어섰고, 개막식 티켓은 단 2분 38초 만에 매진될 정도로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에 따르면 특별전을 개최하는 배창호 감독 등 국내외 영화인들이 개막식 레드카펫에 대거 참석한다. 개막식 사회자는 배우 김신록과 서현우가 맡았으며, 민성욱,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의 환영사로 개막식의 본격적인 서막을 연 뒤에는 특별 공로상 시상과 우범기 조직위원장의 개막선언, 개막공연으로 이어진다.

이번 영화제는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전 세계 57개국 224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는 영화제를 대비해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117만 여명이 방문해 대성공을 거둔 남원 춘향제가 올해도 더욱 확장된 먹거리존과 야경 명소 조성, 풍성한 행사 등으로 관람객 맞이에 나선다.

남원 광한루원 일대에서는 소리와 사랑, 그리고 시간이 어우러지는 ‘제95회 춘향제’가 개최된다.

이번 제95회 남원 춘향제는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광한루원과 요천변, 사람의 광장 일대에서 153여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춘향제는 춘향의 닳을 기리는 전통 제례행사 ‘춘향제향’으로 의미 있는 시작을 알리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리는 공연, 체험, 미식 콘텐츠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통해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춘향제 기간인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관내 유료 공연주차장 3곳을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최성민 기자



전주화산공원에 애기나리꽃 군락지 산지의 숲속에 자생하는 애기나리꽃(학명 Disporum smilacinum)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화산공원에 군락지를 이루고 있다. 4~5월께 흰색의 꽃을 피는 애기나리꽃은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퍼지고, 줄기는 곧게 서며 가지가 없거나 1~2개 갈라지고 높이가 15~40cm까지 자란다. 동글며 검은색으로 익는다. <사진=정소민 기자>

전주시 “완주·전주 하나의 광역교통도시로”

완·전 통합 염원 상생 비전
배차시간 단축, 노선 다변화
급행·심야버스, BRT 연장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완주·전주의 행정통합을 염원하면서 완주군과 하나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광역생활권 조성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윤동욱 전주시장과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송병용 부위원장, 노동식 지역개발분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교통 분야 상생발전 비전으로 시간전체 노선 개편을 비롯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가운데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교통 분야 상생발전 비전으로 시간전체 노선 개편을 비롯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3면서 계속>

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현행 헌법 규정에 상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대통령 몫 헌재법관 임명 권한을 권한대행은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헌재법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며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는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



한덕수 국무총리

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재법관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재법관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재법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의원,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한우농가실질적지원책 명시
한우유전적특성유지관리
법적근거마련 경쟁력 강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한우법 제정안이 농해수위 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제21대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윤준병 의원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위원회 대안이다. 윤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들을 병합 심사했다.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한우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한편, 한우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축·출하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실시,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명시하고, 한우 유전자원 보호, 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등 한우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참여시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도 포함됐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한우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2026년에, 호주산 소고기 관세는 2028년에 폐지될 예정으로 한우농가와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했다.

그러나 한우법 제정을 법안소위 및 공청회 등이 개최돼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을 특혜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왔으며, 현행 ‘축산법’ 내에서 한우 산업에 대한 정책을 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윤 의원은 “소고기 관세 철폐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FTA 등 수입개방으로 고통받던 국내 한우농가 및 한우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우법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다”며 “특히 그동안 한우법 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에서도 한우법 의결에 동참해 준 점은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도, 웰니스관광지 10개소 신규 선정

진안고원산림치유원 등
힐링·치유 관광 자원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10개소를 신규로 선정했다

도의 웰니스관광 신규선정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히 힐링·치유 중심 관광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대상을 모색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시군과 웰니스관광지 대상 현장평가 심사를 거쳐 △자연·치유 △전통·생활문화 △뷰티·스파 △치유음식 등 4개 테마로 나눠 총 10개소를 선정했다.

자연·치유 테마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심신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진안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장수 치유의 숲, 부안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익산 우리들의 정원, 김제 꽃다비팜’ 등 5개소를 선정했다.

전통·생활문화 테마에는 한국적 멋과 생활문화를 오롯이 체험할 수 있는 익산 황수연전통식품을 선정했다.

뷰티·스파 테마 우수시설로는 온

천으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진안 흥삼한방타운이, 치유음식 테마에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힐링을 더하는 순창 발효테마파크와 고창의 토굴발효, 김제 휘게팜이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부터 매년 10개소씩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를 발굴해왔다.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하며 관광지를 통해 전북만의 매력을 담은 웰니스 여행상품을 개발 및 운영해 전북을 대표하는 힐링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선정된 웰니스 관광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프로그램 고도화,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대표상품 운영, 홍보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만의 매력을 담은 웰니스 관광지들이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콘텐츠 강화와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전북 관광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결선 진출

홍준표·안철수 탈락
5월 3일 대선후보 확정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경선에서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후보와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황우여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오후 당사에서 이같은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고 출마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의원은 후보에서 탈락했다.

국민의힘은 내부 경선 규칙에 따라 후보별 득표율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 이어 결선에서도 당원의견 50%, 국민의견 50% 비중으로 경선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30일 양자 토론회를 실시한다.

이후 5월 1~2일 경선을 실시해 그 결과를 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일산 킥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 예정이다.

물론 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이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행과 후보 단일화 등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는 현재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에 대한 국민의힘과 국민들의 지지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목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노동·복지 단체 등과 간담회

지역아동센터·농수산대
총학생회 등 민생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28일 전북자치도당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사회복지회관에서 전북지역아동센터연합,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총학생회,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사회복지사협회와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생 현안 논의 및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총학생회 간담회에서는 최창익 학생회장 등 약 4명이 참석해 청년창업농 제도의 불안정성, 초기 진입비용 문제, 농촌 정주여건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청년창업농 정책의 제검토 및 농지확보를 위한 농지은행 자금 지원 확대 및 장기 임대 추진 등 농촌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예산 증액과 대학원 연계 프로그램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2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담회에서는 이민경 본부장 등 약 5명이 참석해 노정교섭 구성 및 운영방안, 노동인식 개선 사업 지원, 산업안전지킴이단 확대, 비정형 노동자 지원정책, 노동복지관 건립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알트론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및 타타대우 전기트럭 상용화 추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요청이 있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노정교섭 구성을 지원하고 노동인식 개선 사업 협력과 알트론 임금체불 해결을 위

한 국정감사 및 청문회 개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북사회복지사협회 간담회에서는 박주종 회장 등 약 14명이 참석하여 사회복지지연수원 건립,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 권익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노인시설 임금체계 개선, 전주시 시설 운영비 지원 문제, 비정규직 제로화 및 정년 상향 등을 제안했다.

/정재근 기자

새만금청, LS그룹 이차전지 새만금 공장 사용 승인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공구 내 이차전지 전구체를 제조하는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주)의 전체 13개동 공장에 대해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주)은 LS그룹의 지주회사인 ㈜LS와 하이니켈 양극재 전문회사 ㈜엘엔에프가 합작 설립한 전구체 생산 기업으로, 지난 2023년 8월 새만금개발청과 1조 49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4월 28일 전체 공장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현재 새만금은 이차전지 관련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LS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체 생산 규모가 국내 점유율 10%~20% 목표로 확대되면, 전구체 수입의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이번 LS그룹의 새만금 공장 준공을 계기로 관련 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계속 이어져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이병철 도의원, 친환경 운동장 소재 선정 근거 마련



이병철 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민주당, 전주시 제7선거구)이 ‘전북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 향후 친환경 운동장 소재 선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3년마다 교육감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 △학교운동장 소재선정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전북자치도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소재를 주재료로 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이 적은 친환경 운동장의 조성과 관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해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이병철 의원은 “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어린 학생들인데, 아이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많아 미세먼지 등 유해성 물질에 더욱 취약하다”며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3년마다 각 학교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 함량,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운동장의 유해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제정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학생 건강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수칙



운전하기 전 음주는
절대 금지



안전벨트는 반드시
착용



졸음운전 절대 금지



안전속도 반드시 지키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킵시다”

전북, 민간 주도 지역창업생태계 조성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6개 참여 팀스운영사 선정 전략산업별 특화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초기 기술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6개 팀스(TIPS)운영사를 29일 선정했다.

팀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팀스운영사가 역량 있는 창업기업에 1억원 이상을 선투자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개발(R&D) 자금을 최대 17억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6개 운영사는 도내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각 운영사는 10개 창업팀을 발굴해 사업모델 고도화, 투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최소 1개 팀 이상에 직접 투자



전북자치도는 '2025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6개 팀스(TIPS) 운영사를 29일 선정했다. <사진=전북자치도>

한 뒤 팀스 추천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내 활동하는 팀스 운영사가 없어 기술창업기업들의 애로가 커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2년간 5개 운영사를 지원해 60개 팀을 육성하고, 이 가운데 13개 팀

이 팀스에 최종 선정돼 총 44억원의 민간 투자와 121억원 규모의 정부 자금 유치 성과를 거둔 바도 있다.

올해는 팀스 도전기업을 기존 40개에서 60개로 확대하고, 특화 분야도 세분화했다. K-콘텐츠·ICT, 바이오·헬스케어, 방산 분야는 유지하고, 기후테크 산

업은 모빌리티·이차전지와 순환경제로 나누어 지역 산업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최종 선정된 6개 운영사는 ▲K-콘텐츠·ICT 분야의 크립톤(대표 양경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스케일업파트너스(대표 이태규) ▲방산 분야의 로우파트너스(대표 황태형) ▲모빌리티·이차전지 분야의 인포뱅크(대표 박태형) ▲순환경제 분야의 MYSC(대표 김정태) ▲기술사업화 분야의 JB기술지주(대표 지건열)이다.

프로그램 신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자치도 창업지원과에 문의하거나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팀스운영사가 도내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도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왼쪽부터 현대차 전주공장 기능장회 박종관 회장, 상반기 기능장 합격자 손진우 씨, 오종묵 씨, 박우철 씨, 송무 오병호 씨.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전주공장, 국가기술 '최상위' 요람

국가기술 기능장 7명 합격 품질경쟁력 제고 기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장현구)이 2025년 상반기 기능계열 국가기술자격의 최상위 등급의 자격인 기능장 7명을 추가 배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합격자 발표 결과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는 버스차체도장부 박우철 씨가 가스 부문 기능장에 합격한 것을 비롯해 상용파이롯트의장 팀 오종묵 씨 등 총 7명이 에너지관리 등 5개 부문에서 기능장에 합격했다.

이중 박우철 씨와 오종묵 씨는 각각 앞서 취득한 에너지관리와 배관, 용접과 배관 2개 부문씩에 이어 가스, 에너지관리 기능장을 추가함으로써 3관왕에 올랐으며, 트럭차체도장부 손진우 씨는 기계가공 부문에 이어 금형제작 기능장을 추가함으로써 2관왕에 올랐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2011년 기능장 5명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5년 간 총 297명의 기능장 합격자(중복합격자 포함)를 배출하며 우수 기능인의 요람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전주공장은 기능장 수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주력 생산품목인 중대형 상용차 품질 등 제품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이처럼 많은 기능장을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국내 최초 주관연속 2교대 근무제 도입에 따른 직원들 여가시간을 회사차원에서 자기계발로 적극 유도한 데 힘입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기능장 합격자에 대해선 회사 차원의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 것도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300여 명에 달하는 기능장과 품질명장 등 사내 인적자원을 활용해 스터디 모임을 활성화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관계자는 "우수 기능인력 육성을 통한 제품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능장, 품질명장 등 인재 양성을 위해 회사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양호'

72개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 안전 종합 평가 2등급 달성 근로자 건강 지표 높은 평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이 29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최고 수준인 2등급(양호)을 달성했다.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공공기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제도다.

심사를 통해 '국민이용시설, 건설현장,

근로자' 등 안전관리가 중요한 사업과 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지난 2024년 심사에서는 72개 대상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2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단을 포함한 20개 기관이다.

공단은 안전보건경영체제를 마련해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했다.

또 공단은 사업의 위험요인을 파악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이사장의 주요 관심사항인 근로자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직무별 심리진단을 통해 감정소모가 큰 직무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단은 이번 심사에서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지표에서도 과거 3년간에 비해 더 높은 평가를 획득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안전관리등급심사에서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등급을 달성함으로써 '더 안전한 국민연금공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종사자와 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 사 차원에서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주)비유, '감굴부산물 재활용' 환경부 규제특례 통과

농촌진흥청 지원 새싹기업 감굴부산물 산업화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체 규제·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환경부 '규제샌드박스' 관련 신청서류 접수' 등을 통합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주)비유는 환경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승인'을 얻었으며, 앞으로 감굴부산물 일부(작물박, 비상품성, 유통 안되는 감굴 등)의 산업화가 가능해졌다.

·새활용(업사이클링, Upcycling)이란 업그레이드(Upgrade)와 재활용(Recycling)의 합성어.

·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기

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절차: 신속확인-규제특례-임시허가).

농촌진흥청은 최근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심의에서 제도적으로 (주)비유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해 '감굴부산물을 활용한 도양관리자재와 친환경 소재 등을 제조하는 기술'이 통과됐다.

·도양관리자재는 기능성 인공토양소재, 토양 보습제, 멀칭제(피복제), ·친환경 소재는 복합유기산(중화제), 감굴오일(탈취제, 향장제), 추출정제액(산업용 세정제).

이에 따라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2년 동안 친환경 소재·제품 생산의 안전성 검증 및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 단계적 준비도 가능해졌다.

·법령 개정 단계적 준비는 1단계 규제특례 허용 2년 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통한 순환자원인정 승인, 2단계 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에서 재활용 코드 확대.

또 시제품 제작으로 제품 성능 평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의 실증을 통해 사업 확장성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새활용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전문 상담(컨설팅) 업체와 산업체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무를 지원하며 푸드테크 새활용 협의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규제혁신'을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으로 농산부산물(식품 제조·가공 부산물과 수확·저장·유통 중 부산물(유과, 낙과, 비상품성과 등) 포함)이 신소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친환경 제품 시장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새싹 기업들과 추진하

고 있는 '배작잡박', '커피박' 등의 규제특례 신청에 힘쓰고 농산부산물 산업화 위한 핵심기술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비유의 김정은 대표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허가로 감굴부산물 새활용 제품의 상용화가 첫발을 내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자원순환 경제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푸드테크소재과 김진숙 과장은 "농산부산물은 미래 산업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는 소재로서,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환경문제 해결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의 이점이 있다"며 "이를 계기로 관련 부처 및 산업계와 협력해 정책 개선과 기술개발을 연계한 통합적 산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신협 상호금융권 최초 'RCS문자브랜드' 도입

전국 신협 본·지점 번호 적용 문자 기반 금융사기 범죄 예방

상호금융권 최초 'RCS 문자브랜드'가 등록됐다.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문자피싱(스미싱)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고, 신협이 발송한 공식 문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권 최초 'RCS 문자브랜드'가 도입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1,534개 신협 본·지점 대표번호에 적용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문자 수신 시 발신자 이름 옆에 신협 공식 로고와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자 기반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신협 조합원 신

뢰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 문자는 기존 문자메시지(SMS/MMS)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브랜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차세대 문자 서비스다. 특히 공식 인증을 받은 기관만 브랜드 등록이 가능해 이용자 입장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신협은 이번 RCS 브랜드 등록을 통해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문자 기반 금융사기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고 '상품 안내, 이벤트, 금융 정보' 등 다양한 메시지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또 해당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한 신협 모바일 앱 채널 '리온브랜치'로 연결돼 비대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개통

UI 개선·AI접목 생산성 지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은 오는 5월 7일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시스템(이하,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개통한다.

공단은 통합플랫폼 시스템 개통을 위해 오는 5월 2일 18시부터 5월 7일 수요일 08시까지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중요한 업무는 5월 2일 18시 이전에 미리 준비해 두기를 권장한다.

이번 통합플랫폼 시스템은 △국민 편의 증진 서비스 제공 △디지털 신기술 기반 지능화된 업무환경 구성 등을 목

표로 구축했다. 먼저 국민 편의 증진 주요 서비스로는 가입이력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성, 상담 이력 및 외부 데이터베이스 연계 강화를 통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사용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UI)를 적용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구축해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해 개인 전지전능 서비스 확대했다.

사업장 민원 서비스는 모든 신청과 처리를 국민연금EDI로 일원화하고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능화된 업무환경 구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직원의 업무 정확성과 생산성을 지원하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로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농식품기업 20곳 맞춤형 지원 매출 성장 촉진

'Sales-Up' 참여 기업 모집 기업 당 최대 1천만원 지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고용노동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하는 2025년 지역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식품기업 Sales-Up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기업 Sales-Up 지원사업'은 도내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판로개척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매출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고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협약기간 내 채용계획이 있

는 도내 식품제조 기업 총 20개사를 선정해 기업 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의 고도화 전략과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판로개척(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보), 디자인개발(브랜드, 상세페이지 제작 등), 공정개선(생산 공정 효율화 등) 가운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본 사업은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만족도 제고는 물론 매출 증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 농업용수 수질 조사 조사범위·항목·횟수 확대

농업용 저수지 등 1,053소 수질조사 연 4→7회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안전성 강화 위한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수질측정망조사를 통해 '조사 범위와 항목, 횟수'를 강화해 총출한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려는 방침이다.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는 지난 1990년부터 '국가 물환경측정망'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조사는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를 대상으로 이뤄지

며, 조사 결과는 농업용수 수질관리와 오염 대응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수질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사 범위와 항목 등을 확대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975개소에서 78개소 늘어난 1,053개소에 대해 수질 조사를 시행하며, 연 4회 진행하던 정기 조사는 연 7회로 확대했다.

이외 공사와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 1만 7,000여 개소에 대한 수질 조사를 병행한다.

다층적 조사 체계는 오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 방위산업·이차전지·항공우주 학과 신설

글로벌대학30 탄력 첨단산업 인재양성 기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첨단분야 학생정원 조정에 선제돼 해당 학과를 신설한다. 전북대는 정부의 첨단 산업 인재 양성 정책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첨단분야 모집정원 증원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첨단방위산업학과 20명 △이차전지공학과 30명 △항공우주공학과 12명 순증(기존 36명→48명) 등 총 62명의 정

원을 신규 확보하거나 증원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증원으로 우리나라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첨단 방위산업과 이차전지산업에 대해 전담 학과를 신설해 전북대가 지역과 상생을 모색하는 플래그십대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대는 지난 2023년 1기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된 이후 중장기 계획으로 새만금과 전주·완주, 익산·정읍 지역을 연결하는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

앵글(JUIC Triangle)'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이차전지와 K-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신학연 협력 및 인재양성과 지역사업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번 첨단산업 분야 정원 증원은 단순한 숫자 확대의 의미를 넘어 전북이 육성 의지를 갖고 있는 산업 분야와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특히 국가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와 방위산업, 항공우주 산업

은 고급 기술력과 현장 적응 능력을 겸비한 인재 확보가 관건인 만큼, 정원 확대는 곧바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수 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학교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단순한 교육 혁신을 넘어, 지역 전략산업의 중심대학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며, "정원 증원은 그동안의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나타난 것이며, 앞으로도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교육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찾은 서거석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하길”

대학생 대상 특강 “청춘들 꿈이 빛나길”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9일 전북대학교에서 학생 130여 명이 모인 특강에서 “결손, 성실, 배려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타인에게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해 달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어 “전공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인문,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전북대 방문은 전북대가 주최하는 명사·전문가 특강 요청으로 이뤄졌다. 서 교육감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전북대 총장 시절의 교육철학 △학생들의 진로와 꿈을 이루기 위한 제언 등 대학생들이 제시한 다양한 주제를 논

고 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꿈을 찾기 못하고 있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청춘들에게 조언해달라는 요청에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전공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노력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비록 지금은 앞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노력과 맑은 햇빛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 교육감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두 차례 이 대학 총장을 지냈다. 서거석 교육감은 “대학생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라고 이날 특강 소감을 밝히고 “이 자리에 모인 청춘들의 꿈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라며, 전북교육청도 그 꿈을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초등학교 학교자율시간 과목 자율화

교육감 승인 개설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 개설을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29일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설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교자율시간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 국가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과목 외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학교별로 3~4학년은 올해부터 29시간 이상, 5~6학년은 내년부터 32시간 이상 한 학기에 편성해 운영한다. 과목 개설 희망학교 교원 및 관심 교사 2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 개설 확대를 목표로, 과목 개설 절차 및 행정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최성민 기자

특히 지난해 과목을 개설한 전주효천초등학교와 봉서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사례를 들려주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3~4학년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을 18개 개설한 바 있다. 이는 초등 교육감 승인 과목을 개설한 8개 시·도 교육청 가장 많은 과목 개설로 전북 교사들의 교육과정 연구에 대한 열정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은 올해도 학교자율시간을 운영 중인 3~4학년을 포함한 내년 운영 예정인 5~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감 승인 과목 개설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교육감 승인 과목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는 ‘초등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모델 개발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학교 신청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해당 연구학교는 전주효천초, 봉동초, 회현초, 무주초 등 4개교이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로 육성한다

국립군산대학교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풀무원과 함께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에코너지 글로벌 이니셔티브’ 구축을 위한 협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4자 협의는 새만금 지역의 글로벌 식품허브 육성 및 에코너지 전략 실행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진행된 협의에는 국립군산대는 오정근 글로벌대학추진단장, 권봉오 대학원장, 위휘 기획처장 직무대리가 참석했으며,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유지원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단장, 새만금 메가시티 옥나라 사무관, 김순동 주무관, 풀무원에서는 안덕준 상무가 참석하여 각 기관의 강점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협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군산대의 해양바이오 테스트베드와 연구역량, 새만금개발청의 글로벌 푸드 네트워크, 풀무원의 식품에 대한 가치와 사업 노하우 등을 연계 새만금을 글로벌 식품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다. /최성민 기자



기전대, ‘심화현장실무’ 전공 체험 프로그램

다양한전공체험통해진로설정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 진로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전공체험 프로그램인 ‘심화현장실무’를 진행한다. ‘심화현장실무’는 학업과 직업에 대한 정보 탐색을 통해 전공 역할과 직무를 확립하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전공 직무능력과 직업기초능

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교양 교과목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공별 체험 부스 및 강의실 체험을 통해 본인 전공은 물론 타 학과 전공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진로설정

전북도립미술관, 어린이날 맞아 체험 프로그램 운영

5월 3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북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이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어린이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미술관 야외광장에서는 바닥에 꽃 그리기 체험인 화전(畵展)놀이가 진행된다. 우천시 야외광장 이용이 불가능해 1층 체험실 옆에서 클레이로 나만의 똥을 만드는 ‘내 똥, 내 똥, 칼라똥’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도립미술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전시 ‘아이스크림 똥’이 개최되고 있다. 전시실 내부에는 질문 카드를 통해 감정과 인식의 형성 과정을 돌아보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 ‘달콤함과 더러움 사이에서’가 운영된다. 또한 신민 작가가 그린 ‘내 머



리 위의 똥’ 이미지를 활용해 어린이 대상의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 ‘내 머리 위의 아이스크림 똥’이 1층 체험실에서 운영된다. 또한 아이스크림 똥 전시 연계프로그램인 ‘똥! 씻고 올게요’ 똥 모양 비누 만들기 체험을 1층 실기실에서 진행한다. /정재근 기자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기념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2025년 5.10(토)~11(일)
10:00~21:00

장소 · 정읍천 어린이축구장 일원

주최 정읍시 주관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후원 정읍농협 순정축협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역압에서 피어난 불꽃

축하공연

박지현

알리

황윤성

하림

익산시, 주중·주말에도 감시 축산악취 “꼼짝마”

익산시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축산악취 대응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역 내 축산악취 해소 및 불법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올해도 ‘축산악취 상시감시반’을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감시반은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중(16~24시), 주말(14~21시) 운영된다. 특히 야간과 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올해 상시감시반은 △집중관리 농가 55개소 순찰·감시 △취약 시간 민원 신속 대응 △미부숙 분뇨 불법 배출 감시·계도 △장마철·우천 시기 가축분뇨 무단 방류 우려 지역 감시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익산시는 축산악취 상시감시반 및 악취상황실 운영을 통해 반복적인 악취 유발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2기 수강생 모집

평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 평생학습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 ‘2025년 정규 2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2일 오후 6시까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방(https://ill.gunsan.go.kr) 누리집에서 선착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5월 8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산시평생학습관으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3만 원이며, 강의계획서 및 준비물 등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53개 과정 716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한자로 푸는 명심보감 등 ‘인문 교양’ 10개 강좌 △어반 스케치 등 ‘문화예술’ 16개 강좌 △건강한 몸만들기 등 ‘생활문화’ 7개 강좌 △스마트폰 카메라 작품 사진 촬영 등 ‘IT’ 2개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조직문화 유연화 MZ세대 공무원과 소통

정읍시가 MZ세대 신규직원과 이학수 시장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브런치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공직사회 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시는 지난 28일 근무 연수 1년 미만의 신규직원 10명과 이학수 시장이 함께 브런치를 나누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형식적인 간담회를 탈피해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공직사회 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진행된 자리에서 신규직원들은 공직생활에 대한 소감과 개인적인 궁금증, 업무 고충 등을 털어놓았다. 이학수 시장은 이에 귀 기울이며 진솔한 답변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세대 간 경계를 허물고 소통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이어가겠다”며 “MZ세대 공무원의 목소리를 존중해 이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홀로그램 유망 강소기업 유치

(주)알엠지등 기업과투자협약 홀로그램 산업 활성화 지원

익산시가 홀로그램 첨단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 손잡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주)알엠지(대표 김희정), (주)메디아앤메디올로지(공동대표 정광일·박정하)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양사 대표, 최대규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는 홀로그램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첨단기술 기업 유치

를 통해 기술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알엠지는 경기도 군포시에 본사를 둔 홀로그램 위조방지 라벨 제조 전문 기업으로 2016년 설립됐다. 정품 확인 용 보안 라벨과 큐알(QR)코드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다수의 국내외 특허와 상표·디자인 등록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주)메디아앤메디올로지는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 전문기업으로 2023년 설립됐다. 가상현실 기반 서비스와 홀로그램 뷰어, 자체 제작(DIY, Do It Yourself) 연동 키트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경 고카트와 자율주행 미니카 등 차별

화된 제품과 기술 특허로 국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익산시는 홀로그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홀로그램 기술 실증 지원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지원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및 가시화 서비스 사업화 실증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충렬사우물 5곳 문화유산 신규 지정

충렬사 향토문화유산 관리 조소·현암·상축마을 우물 등

정읍시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적을 기린 충렬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역사적 가치가 큰 마을 우물 5곳을 추가로 관리대상에 올렸다.

시는 최근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내 충렬사를 새롭게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또 조소마을 우물, 현암마을 우물 등 역사적 가치가 큰 우물 5곳을 관리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정읍 충렬사는 이순신 장군이 정읍현감으로 재임 당시 배편 선정을 기리고자 광복 이후 지역주민과 학생 등 각계층을 돌리개로 독특한 보존 형태를 지니고 있고, 표현마을 우물은 물을 바가지로 퍼서 쓰던 방식에서 마을명이 유래해 역사적 의미가 크다.

또한, 상축마을 우물은 수질 관리가 뛰어나고 주변 경관이 우수하며, 봉양마을 우물은 두레박을 걸던 전통적 방식을 보존하고 있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충렬사 전경

<사진=정읍시>

시는 지난해 이미 정해마을 우물 등 4곳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 지정된 우물까지 더해 총 9곳의 우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물이 풍부한 역사적 배경 덕분에 지역 명칭에도 우물 정(井)자가 포함된 유서 깊은 곳”이라며 “충렬사와 우물 등 지역의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1단계 준공

수변전망테크·산책로·꽃밭 등

익산시가 백제 무왕의 탄생지로 알려진 서동생가터와 연동제(마루지) 일원의 유적을 정비하고 본격 개방에 나선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비 136억 원을 포함, 총 194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서동생가터 유적정비사업’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정비를 통해 수변전망테크, 산책로, 꽃밭, 주차장 등 다양한 힐링 공간이 조성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쉼터를 제공한다.

특히 마루지 주변에는 초화류를 식재하고, 산책길 곳곳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감각적인 야경을 연출했다. 야간경관은 오는 5월 3일 서동축제 개막과 함께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새로 조성된 제2주차장(연방죽 가든 옆)을 이용하면 산책로로 바로 접근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서동생가터 정비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됐으나, 부지 내 석축, 저운저장고 등 다양한 유구가 발견되면서 발굴조사가 병행됐다.

이에 따라 발굴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1단계로 구분해 우선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는 수변테크 주변 추가 경관조명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단계 정비공사는 올해 설계와

작공 후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서동생가터 정비를 통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및 활용 기반을 다지고,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백제왕궁, 금마지 등 주요 유적지와 연계해 강화해 익산의 고도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상반기 내 완료 예정

윤달 대비 화장 수요 준비 완료

군산시는 군산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장 수요 증가와 화장시설 노후화,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현재 군산승화원에는 5기의 화장로가 운영 중이며, 일일 평균 11구의 시민이 화장되고 있다. 지난 한식 기간에는 개장 유류가 하루 평균 31기 화장되기도 했다.

특히 다가오는 윤달(2025년 7월 25일 ~8월 22일)에 대비해 사전점검과 화장로 개보수를 통해 원활한 화장 수요 대

응에도 대비하고 있다.

군산승화원은 추모 1~4관과 화장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준공된 추모 4관은 약 2만 기의 봉안 설비를 갖췄다. 시는 추모 4관 준공으로 앞으로 15년간의 봉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5월 2~21일까지 신청

익산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오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대상자에 따라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매달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으

로,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30만 원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39세 청년으로, 월 근로·사업소득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달 10만 원 이상의 본인 적립금을 납입해야 한다. 아울러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5월 가정의 달 상품권 구매해도 상향

소상공인 지원금 등 소비 촉진

정읍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사랑상품권 구매해도 확대, 공공배달앱 할인 이벤트, 소상공인 안전지원금 지급 등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우선, 정읍사랑상품권 월 구매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오는 5월 1일 오전 8시부터 판매가 시작되며,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통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 3일부터 6일까지 5000원 할인 쿠폰이 선착순 지급되고, 위메프오 앱을 통해 1만 5000원 이상 주문 시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월 한 달간 일반 가맹점은 최대 2000원, 전문시장은 최대 4000원의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정읍사랑상품권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페이백 이벤트도 함께 실시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월 초 ‘소상공인 안전지원금’ 50만원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지역 농수특산물 알리기 총력전

‘서울동행상회’ 입점 행사

군산시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인지도 상승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부터 군산 우수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소비시장 공략에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행사로 △‘서울동행상회’ 입점 및 기획전 행사 △광화문책마당 동행마켓 △군산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지원 등이 있다.

올해는 지난 7일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사업단)의 관계자 6명이 직접 ‘군산회현농협RPC’, ‘비응도등대가’, ‘군산로컬푸드직매장’을 찾아 온·오프라인 물에 적합한 상품을 조사하기도 했다.

또한 사업단은 군산시와 함께 △‘비응도등대가’ 간장계장과 양념계장의

실시간 상거래(라이브 커머스) 진행 △온·오프라인 입점 상품 확대 △판촉 기획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5월 19일~20일까지는 서울동행상회에서 ‘군산시 우수 농수산물 기획전’도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군산의 우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고 금액에 따라 군산 농산물, 장바구니 등 증정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동행상회’는 지역의 중·소농을 돕고 서울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종로구 안국동에 설립한 농특산물 오프라인 상설매장이다. 현재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전국 각지의 고품질 우수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판매되고 있다.

황관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지난 28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민간전문가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의회는 지난 2022년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7

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4월까지이며,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 광한서로, 걷고 머무는 거리로

20억 투입 단계적 추진 광한루-시장-구도심 연결 지역행사 맞춤 광장 조성

남원시가 광한루원에서 공설시장,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중심 보행축인 광한서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한서로는 시민과 관광객의 보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한편, 춘향제와 월광포차 등 지역 축제와 행사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광장형 거리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는 지난 16일, 금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의 취지와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남원시가 광한루원에서 공설시장,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중심 보행축인 광한서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조감도. <사진=남원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광한루원과 공설시장, 구도심을 연결하는 보행동선을 개선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과 방문객이 걷고,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

다.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최영일 군수, 군민 민원 챙기는 ‘체감 행정’

군정설명회 건의사항 신속처리 부서간 협업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28일 ‘2025년 마을방문 및 군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주재하며,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28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보고회는 연초 320개 마을 방문과 11개 읍면 군정설명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878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각 부서장과 담당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총 878건의 건의사항은 마을 방문에서 803건, 군정 설명회에서 7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도로시설과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건설과가 364건으로 가장 많은 건의가 접수됐으며, 이어 건강장수와,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순이다.

각 부서는 건의자 면담과 현장 출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했으며, 보고회에서는 연내 완료 예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상급 기관 건의와 타 기관 이첩, 장기 검토 및 시행 불가 등 다양한 처리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부서 간 업무연찬을 꾀해 여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형 보고회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최영일 군수는 첫날 보고회에서 “건의사항과 추진 중인 사업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군민 불편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순창군은 2025년 연초 마을방문과 군정설명회 시 전년도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며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 행정을 계속해가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복합문화공간 달빛정원·피오리움 개관

폐자원시설 문화정원으로 개관기념 향이몽이 명화전

남원시는 오늘 복합문화공간 ‘달빛정원’과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을 정식 개관한다. 개관을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와 할인 프로모션도 함께 마련됐다.

개관을 기념해 남원시 대표 캐릭터 향이몽이의 명화전을 개최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매일 선착순 100명의 피오리움 입장객에게 ‘향이몽이 명화북’을 증정할 계획이다. 입장료 할인 혜택 역시 제공된다. 일반 관광객은 정사가 대비 2,000원이 할인되며, 50% 할인을 받는 남원시민은 추가로 1,000원 할인과 함께 1회 입장 시 이후 무제한 입장이 가능한 회원등록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일반 관광객도 남원누리시민 가입 시 50% 할인을 상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광한루원 무료입장을 비롯해 남원시가 운영하는 유료시설에서 50% 할인 또는 무료입장 혜택을 누릴 수 있



남원시는 오늘 복합문화공간 ‘달빛정원’과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을 정식 개관한다. <사진=남원시>

어, 남원 관광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향상된다.

이번 개관은 남원시가 콘도건축이 중 단계 오랜기간 방치됐던 폐산업시설을 리뉴얼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달빛정원’의 첫 공식 개방이다.

‘새롭게 피어나는 남원의 빛’을 주제로 한 미디어 전시와 참여형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선보이는 전시관 ‘피오리움’을 중심으로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

에게 열린 새로운 문화 쉼터로 조성됐다.

남원시는 앞으로 달빛정원을 중심으로 광한루원과 합파우 아트밸리를 잇는 문화·관광 벨트를 본격화하며, 남원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어린이날 바둑 대회 “리틀 이창호 누구”

5월 3일 가족문화교육원서 바둑기사 지도 기초 체험도

완주군이 어린이날 대축제를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 가운데, 어린이 바둑 체험 및 바둑대회를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이번 바둑 체험 및 대회는 5월 3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가족홀에서 주)아시아(대표 오인섭)의 협조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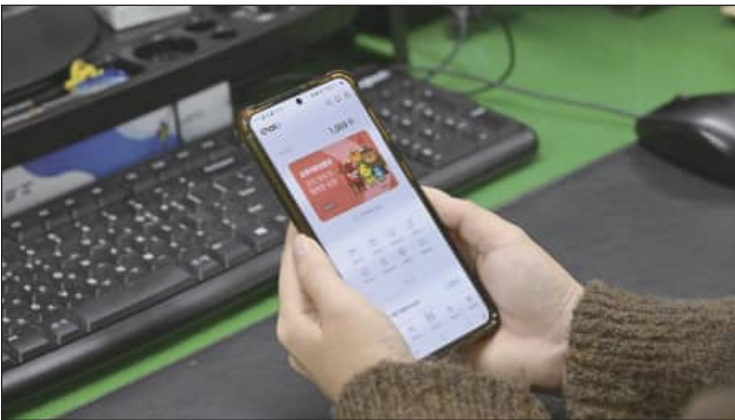
되며, 바둑에 관심 있는 어린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바둑 체험 부스에서는 바둑 기사의 지도 아래 바둑의 기초를 익히고, 바둑판 위에서 전략과 사고력을 키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지는 바둑 대회에서는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바둑대회는 이창호사랑회가 주관해 더욱 의미 있고 전문성 있는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바둑은 두뇌 발달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집중력을 기르는 데 매우 유익한 활동”이라며 “아이들이 재미있게 바둑을 접하고,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군 어린이날 대축제 현장에는 바둑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문화활동이 함께 마련돼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은 5월 한 달 동안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적립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5월 한 달 한도 상향

구매·적립 한도 한시적 늘어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적용

순창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적립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적립 한도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확대는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에만 적용되며, 지류

상품권은 모두 소진돼 구매가 불가능하다.

상품권 구입은 모바일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CHAK)’ 앱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 우체국, 신한,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순창군은 5월 1일부터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의 회원 가입과 구매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춘향제 대동길놀이, 두 배 길고 화려하게

23개 읍면동 총출동 행렬 4일간 퍼레이드·공연 풍성

제95회 춘향제 대표 행사인 대동길놀이가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남원 시내 중심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 길놀이는 춘향전의 명장면들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 공연으로 매년 춘향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특히 작년 2일간 진행됐던 행사 기간을 4일로 늘리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남원 23개 읍면동 주민과 해외 공연단, 춘향이 카 퍼레이드, 태권도 시범단, 경찰 사이드카 퍼레이드 등 특별 게스트가 총출동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댄스 행렬과 다채로운 퍼포

먼스로 남원의 전통문화를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선보인다.

퍼레이드는 용성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상교동 성당, 차 없는 거리, 메인 무대까지 약 2km 구간에서 진행되며, 매일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거리에서 퍼레이드와 다양한 공연, 포토 이벤트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또한 이후 광한루원 완월정 앞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 ‘대동한마당’이 펼쳐진다. 이 행사는 대동길놀이가 끝난 후 4일간 매일 진행된다.

‘대동한마당’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참여형 공연 프로그램으로 특히 올해는 EDM DJ 공연과 사랑가 플래시몹이 더해져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춘향제 맞이 주차 공간 ‘활짝’

공영주차장 전면 무료 개방 편의성 제고·교통 혼잡 해소

남원시는 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7일간, 춘향제 기간 중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3개소를 전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춘향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성을 높이고,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남원시에는 총 59개소, 2,87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56개소는 평소에도 무료

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 무료 개방 대상은 유료로 운영 중이던 △시청주차장(197면), △도룡지구 주차타워(258면), △시청4가 주차장(81면) 총 3개소이다. 시는 춘향제 기간 동안 이들 주차장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면 무료 개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행사기간 교통과 직원 25명과 공공근로자 7명을 현장 배치해 안내, 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농산물 생산단계 잔류농약검사 강화

본격 영농철 맞아 안전 관리

완주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출하 전 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29일 군은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하 전 생산단계부터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연기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토양살충제의 부적합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농약 사용 기준 준수와 동일 성분 농약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농산물 재배 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현재 완주군은 농산물 잔류농약, 유해 미생물, 토양, 가축분뇨 퇴·액비 검사 등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과학영농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설명회 지역 특성 맞춤 주민 소통 강화

남원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20개 읍·면·동(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각 읍·면·동 이·통장 및 주민대표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제도의 개념과 추진방향을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됐다.

남원시는 주민설명회와 별도로 각 지역 주민들과의 설문조사, 각 읍·면·동장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파악했다. 주민들은 일차리 창출과 함께 고령화 문제 해결, 정주 여건 개선 및 농촌 특화작물 육성 등을 강조하며, 지역의 현실적 여건과 미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특히, 대산면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과 청년농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침단 농업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매면에서는 혼불문학권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농촌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문학과 농촌경관을 융합한 특화사업 추진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중앙도서관 ‘감동 일상 포착’ 포토에세이 강좌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 중앙도서관이 오는 5월 8일부터 6주간 ‘나만의 포토에세이’(My Life, My Photo Essay)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소중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포착하고, 사진 속에 글을 담아 나만의 포토에세이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핸드폰으로 사진 잘 찍는 방법 △사진 디자인(편집) △SNS 공유·홍보 등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는 참가자들이 사진과 글을 결합한 자신만의 포토에세이를 완성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접수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QR 코드로 접수 가능하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북은행, 기부금 천만원 3년 연속 순창군에 기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임직원과 고객 등 96명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부금 1,050만 원을 순창군에 29일 기탁했다.

전북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 2023년부터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129만 원을 기탁했으며, 2024년에는 850만 원, 올해는 1,050만 원을 기탁해 총 3,000여만 원을 기부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안내하며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부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지난 26일 섬진강 일원에서 열린 ‘제2차 순창 섬진강 트레일레이스’에도 100여 명이 단체로 참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상생·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새마을금고, 연도대상서 2년 연속 ‘혁신경영 우수’

순창새마을금고(이사장 양영수)가 지난 28일 ‘2025 전북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혁신경영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및 임원, 시·군·구 협의회장 및 금고 이사장, 실무책임자 등 약 100여명 정도 참석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은 경영실적이 탁월한 새마을금고를 시상하고, 경영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양영수 이사장은 “올 결산에는 손실금 모두를 털고 출자배당과 금고 정상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장학금 587만5000원 기탁

정읍시 대한노인회 회원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 세대 지원에 힘을 보탰다.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지회장 이호춘)는 지난 28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587만 5000원을 기탁했다.

이호춘 지회장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작지만 정성 어린 손길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삶의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주)휴비스 전주공장, 산불피해 성금 500만 원 기탁

정읍 금동마을 화북 지원

(주)휴비스 전주공장이 정읍 금동마을 산불 피해 복구 성금으로 500만 원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29일 찾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3월 25일 금동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는 (주)휴비스 전주공장 김준호 안전팀장과 김선호 안전과

트장, 이오숙 본부장을 비롯해 권기현 119대응과장, 조정훈 화재조사팀장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주)휴비스 전주공장 김준호 안전팀장은 “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와의 동반 속에서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중한 성금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완주군,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어버이날 기념행사 ‘후후’

완주군 LH삼봉사회복지관(관장 임평화)이 지난 28일, 지역 어르신 50여 명을 모시고 ‘2025년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어린이들은 <아기상어> 율동 공연을 선보이고, 준비한 떡과 간식을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은 “요즘 외롭고 조용한 날이 많은데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춤추고 선물도 주니까 마음이 훈훈하고 기운이 났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무주군 적상면 한마음장학회, 우수 대학생에 장학금 전달

무주군 적상면 한마음장학회가 지난 29일 적상면 출신 학업 우수 대학생 3명에게 각각 1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적상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우 적상면장, 고귀식 적상면 한마음장학회 회장을 비롯한 장학생들과 그 가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귀식 적상면 한마음장학회 회장은 “지역 인재 육성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모여 지난 1993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지난해까지 114명의 꿈을 뒷바라지해 왔다”라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저소득어르신위해백미기탁

정읍시 태인면 동화중학교 학생자치회가 작은 손으로 모은 큰 사랑을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전했다.

학생회장 이엔을 비롯한 학생들은 지난 28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 달라며 태인면사무소를 찾아 백미 5kg 30포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학생회가 주최한 학교 내 플리마켓 수익금으로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플리마켓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얻은 수익을 소중히 모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돕는 데 사용됐다.

동화중학교는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동화윈드 오케스트라 공연 활동 등 다양한 이웃돕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이번 학생회의 기탁도 그 일환으로, 어른들은 물론 지역 사회에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남원 JB청년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치킨 50마리 후원

남원 JB청년회(회장 강태균)는 지난 25일, ‘chill하게 행복나눔’이라는 주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치킨 50마리(10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남원 JB청년회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20~40대 청년 2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집수리, 물품 후원, 관광지 환경정화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남원 JB청년회 강태균 회장은 “작지만 따뜻한 나눔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중소기업융합전북전진융합회, 정읍 산불 이재민 돕기 성금 기탁

(사)중소기업융합전북전진융합회(회장 최유)는 지난 21일 정읍시 소성면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고 29일에는 현지를 직접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유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발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전주시설공단, 세병공원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29일 에코시티 세병공원에서 ‘플로깅(Plogging)’을 통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복합시설부 에코체육센터 직원 10여 명을 주축으로 진행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시민들이 깨끗한 공원을 산책하며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방치된 폐기물을 정

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플로깅은 ‘이사를 줍다’란 뜻의 스웨덴어 ‘플로가 우프(Plocka Upp)’와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운동을 일컫는다.

친환경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MZ 세대 위주로 활성화됐으며,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착한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재근 기자

조방영 익산시 시민참여위원장, 위탁가정 지원

익산시는 시민참여위원회 조방영 위원장이 지역 아동들의 건강 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자 여름이불 52채를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이불은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으며, 지역 내 위탁가정 아동 모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가정위탁아동은 친부모의 질병·학대·사망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국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위탁가정의 보살핌을 받는 아동이다. 가정위탁제도도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다.

조방영 위원장은 “아이들이 불편 없이 여름을 나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조그레 <九旬展>개인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장미겔러리 2층 전시관에서 29일부터 6월 22일까지 조그레 개인전 <九旬展>이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그레 작가가 힘들거나 외로울 때, 즐겁거나 슬플 때 친구처럼 다정함과 위안을 받으며 삶을 풍족하게 해주었던, 정제된 기법의 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서양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군산=지송길 기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 쓰레기가 자연분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종이 : 2~5개월

우유팩 : 5년

1회용컵, 나무젓가락 : 20년 이상

비닐봉투, 칫솔 : 100년 이상

스티로폼, 플라스틱 : 500년 이상

〈一事一言〉



나라 망칠 송미·기회주의자 한덕수(2)

오태규
언론인

두 달도 남지 않은 한시적인 대통령 대행이 지금 최우선으로 할 일은,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대선 출마론에는 가타부타 확인하지 않은 채 간을 보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트럼프 정권과 관세 협상에는 저돌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야 골수 친미 대행이 이끄는 약체 과도 정권을 상대로 최대한 많은 이익을 뽑아내자는 계산이겠지만, 한 대행은 무슨 꿈공이로 차기 정권에 부담이 될 게 뻔한 일을 '마지막 소임' 운운하며 나서는 걸까요. 더구나 그가 통상 관료로서 친미적인 태도를 보였던 시절의 미국은 동맹과 자유무역을 중시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은 이전의 미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채 동맹과 자유무역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최근 <명품 외교의 길>이라는 한국 외교 비판서를 낸 이창천(가명) 전 대사는, 이 책에서 한 대행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정부 고위층에 있는 그를 이용해 협상의 실익을 전부 챙겼다. 미국은 보이지 않는 손과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사용해 두 번에 걸쳐 그를 총리직에 올랐는지도 모른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인사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것은 다 알려진 비밀이다." 아마 이 문장에서 한 대행이 상식을 벗어

나 행동하고 나선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최근 행태는 여태껏 그를 키워주고 밀어준 미국에 마지막 보답을 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 대행은 친미 사대주의자, 송미주의자이기도 하지만 기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배신과 아부를 상황에 따라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인물의 전형으로 꼽힙니다. 호남 출신인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전북 태생을 숨긴 것은 너무 유명합니다. 일례입니다. 김영삼 정권 때 김대중 씨의 측근인 유종근 씨가 전북지사로 당선했습니다. 유 지사가 중앙부처에 있는 전북 출신 관료들의 협조를 얻으려고 당시 특허청장이던 한 씨를 방문했는데 '난 전북 출신이 아니다'라는 소리와 함께 그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 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뒤 유 지사가 대통령 경제고문이 되고 한 씨와 같이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그가 태도를 바꿨 '나도 고향인 전북'이라고 유 지사에 꼬리를 쳤지만, 유 지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총리였으면서도 주미대사 시절에 치러진 노무현 대통령의 7일 국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배신의 대표 사례로 거론됩니다. 배신은 항상 아부와 짝을 이룹니다. 아무리 가깝게 모셨던 사람도 권력을 잃으면 현

신택처럼 버리고, 아무리 멀었던 사람도 권력을 잡으면 아부해야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명품디올 가방 문제가 한창 시끄러던 2024년 9월 30일 <조선일보>에 나온 인터뷰 기사가 압권입니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은 어때냐'라는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인이다. 가장 개혁적이고"라고 답했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서냐'라는 되물음에 "국가냐 인가냐 했을 때 (윤 대통령은) 당연히 국가고 국민일 것"이라고 한껏 추켜세웠습니다. 그의 아부는 권력자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외교 실세인 김태호의 언행을 지적하며 그의 이름을 여러 번 물었지만, 끝내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끝내 '그분'이란 존칭을 되풀이했습니다.

맹목적 사대주의와 기회주의는 하나만으로도 국가에 매우 위험합니다. 최고 공직자가 그런 자질을 지니고 있다면 나라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밖으로는 국부가 유출되고 안에서는 정부의 신뢰가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행은 두 가지 성향을 다 겸비한 최고급 관료입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사람이 국정을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에 큰 불운이자

불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윗물은 그대로 아랫물의 청탁에 영향을 줍니다. 내란 사태 이후 모두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한 대행이 이끄는 내각은 썩을 대로 썩었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위헌·위법을 무시로 저지르고도 사과는커녕 반성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나라 경제의 파수꾼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나라 경제가 나빠져야 이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10여 명이 나 되는 장관 중에서 내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장관 모두가 한 대행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곧 새 정권이 탄생하겠지만 한덕수 내각의 악행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 최악의 내각이라는 역사적 '분홍 글씨'를 이 내각의 이마에 깊이 새겨놓고 길이길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상생의 지혜로 풀자

새만금 개발의 핵심 축 중 하나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매립지 660만여㎡에 대해 김제시 관할로 최종 의결하자, 인접한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 소송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문제로 김제시가 우위를 점한 바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향후 행정 경계 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 걱정이다.

이번 결정은 행정 효율성, 연접성, 자연지형, 주민 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뤄졌다는 것이 행안부 중분위의 설명이다. 법적 절차를 거쳐 판단된 최종 결정인 만큼 존중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김제시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수립, 민간 투자 유치, 인프라 확충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프로젝트로서의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낳는다.

그러나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현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문제 제기 역시 경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군산시는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공급과 유지·관리의 주체였고, 주민 생활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천 중점 등 기존의 법적 지형 기준과 실질적 변화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새만금과 인접한 지자체 간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현재의 갈등의 시간을 뒤로 하고 상생과 협력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불가능하다. 사업 주체 간의 반목이 장기화될 경우,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국책 사업의 신뢰도마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열린 소통과 실질적인 조정 노력이다. 전북자치도는 중재자로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하며, 중앙정부 역시 단순한 행정구역 판단에 그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한 법적 관할 결정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 이익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김제시는 이번 결정을 '단독 승리'가 아닌, 새만금 전체의 성공을 위한 '책임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새만금과 관련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이와함께 군산시와 부안군도 단기적인 손익 계산보다는, 중장기적인 협력의 틀 안에서 공동 발전을 모색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이 병행되더라도, 협의와 공감의 창구는 꼭 열어두어야 한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은 특정 지자체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과 국가, 그리고 미래 세대가 공유할 소중한 자산이다. 행정 경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형 프로젝트가 어느 지역이든, 누구에게든 실질적인 혜택과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이제의 갈등의 시간을 뒤로 하고 상생과 협력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문화재열전

양대사마실기 목판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유물, 유교조각
-지정일 - 2021년 1월 22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전북 남원시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완산지국 010-8642-6502
연우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전북타임스와 함께
전북의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JBT
전북타임스 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대표전화 282)9601 팩스 282-9604

제12회 부안마실축제 부안의 맛과 멋, 마실길에서 취하다



부안마실축제 야간 전경 <사진=부안군>

부안군 대표 축제인 제12회 부안마실축제가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안 해돋마루 지방정원에서 개최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풍요로운 부안을 다정한 마실에 담아 선물이 되는 축제로 부안의 풍요로운(자원)과 즐거움(놀이), 맛(먹을거리)가 함께하는 어울림(사람)을 담아 소통과 화합하는 축제다.

올 축제는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을 콘셉트로 마실을 알리는 축제를 넘어 부안에 집중하는 축제로 개최된다.

축제 공간은 이웃마실과 놀이마실, 문화마실, 별마실, 정원마실,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축제 프로그램은 지속 발전 프로그램과 변경 프로그램, 식재 및 신규 프로그램 등으로 준비된다.

이에 따라 제12회 부안마실축제를 미리 소개한다.

5월 2~5일 해돋마루 지방정원

이웃·놀이·별미 등 5가지 테마

몬스터 키즈파크서 자연체험

불꽃놀이·락페스티벌·공연 등

◆부안의 다채로운 매력 더 가깝고 생생하게 느끼는 이웃마실

제12회 부안마실축제 이웃마실 프로그램은 부안의 다채로운 매력을 더 가깝고 생생하게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부안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부안을 즐길 수 있는 '이웃가웃 마을투어', 부안의 으뜸 식재료를 활용해 매년 색다른 미식 콘텐츠를 선보이는 '부안밥상-스타셰프 부안푸드쇼', 부안군 13개 읍면의 테마를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해 미션을 해결하면서 진행되는 체험형 미션투어 '마실프렌즈 구축 대작전' 등이 관객을 기다린다.

또 축제의 상징인 마실프렌즈를 각인한 골드바

를 증정하는 '황금문을 선물합니다'와 만물상화처럼 부안의 이모저모를 담은 콘텐츠형 팝업스토어 '부안팝업스토어', 손으로 만드는 추억과 마음으로 배우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부안 체험홍보마실' 등이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신나게 놀며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놀이마실

제12회 부안마실축제 놀이마실 프로그램은 신나게 놀면서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부안의 산과 들, 바다, 노을을 테마로 한 체험형 놀이공간 '몬스터 키즈파크'는 아이들에게 자연 체험과 신체활동을 동시에 제공하며 자연 속에서 즐기는 생태 어드벤처 놀이터로 마련된다.

화려한 불거리를 제공하는 공연팀과 이웃마실의 캐릭터 인형이 모여 장관을 연출하는 '해돋마루 마실 퍼레이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는 도심 속 오아시스 '뽕뽕마실랜드'와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마실 명랑운동회', 한국인형극협회와 함께하는 '꿈꾸는 인형극장', 사방을 감싸는 물임감으로 남녀노소 모두 관람 가능한 '달빛영화극장', 지역 예술을 배우고 즐기고 느끼는 문화예술강좌 '아르떼 오감극장' 등이 관객을 맞는다.

◆환호하고 공감하며 문화예술로 하나 되는 문화마실

제12회 부안마실축제 문화마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개·폐막식'을 비롯해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기는 체험형 율동 동요 콘서트 '핑크퐁과 튜튼캣의 댄스 파티',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지우고 잊지 못할 음악 여행을 선물하는 '마마스앤파파스 뮤직 페스티벌' 등 화려한 공연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 축제기간 4일 동안 지루함 없이 즐길 수 있는 불꽃놀이·마실락페스티벌·지역예술인 공연·주민자치 시연 등 '마실 무대 프로그램'도 기대된다.

◆풍부한 부안의 맛을 새롭고 즐겁게 맛보는 별마실

제12회 부안마실축제 별마실 프로그램은 부안의 다양한 맛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외식업지부 간식부스와 읍면 먹거리부스, 부안 로컬 특산물 판매부스, 푸드트럭 등에서 다양한 부안의 음식들을 판매한다.

특히 부안군예술인협회와 읍면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예술인 공연 프로그램도 마련돼 분위기와 흥을 한껏 돋울 예정이다.

또 부안 로컬푸드를 현장에서 직접 구입해 즉석에서 솥밥에 구워 먹는 '부안마실팍파티'도 꼭 찾아야 할 프로그램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